

中共과 蘇聯關係의 分析*

畢 英 賢**

- | | |
|----------------------------|-----------------------------|
| 1. 序 論 | 5. 中蘇 實質關係의 變化 |
| 2. 三個十年 三種關係 | 6. 正常化에 관한 最近 論點과 正
反要素 |
| 3. 中蘇關係 正常化展開 | 7. 結 論 |
| 4. 關係正常化에 관한 雙方의 基本立
場 | |

1. 序 論

1960年 中共과 蘇聯사이 에 발생한 공개적 論爭이 있기 以前까지 共產黨은 共產集團의 단결은 거대한 한 덩어리의 바위와 흡사하다고 자찬하였으나, 1960年 이후 이 거대한 바위에 붕괴될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中共과 蘇聯의 분열은 20世紀 후반에 발생한 가장 중대한 국제사건 가운데 하나로, 국제관계 전 방면에 큰 영향을 주는 역사적 意義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1971年 末 中蘇關係 正常化會談의 시작 역시 직접 혹은 간접으로 국제정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본 논문은 中蘇關係의 발전방향을 研究의 주제로 삼은 관계로 이런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과거 中蘇關係의 주요 進展變化, 쌍방관계 정상화의 발전 要素 및 정상화를 지지하는 기본입장에 관한 포괄적인 설명과 결론을 꼭 필요로 한다.

* 이 論文은 1984年 10月 16日부터 23日까지 中華民國 臺北에서 열렸던 第5次 韓中學術會議에서 발표되었던 것을 번역한 것임.

** 中華民國 國立政治大學 國際關係研究中心 研究員

2. 三個十年 三種關係

70年代末, 蘇聯의 中共問題 전문가 M.S. Kapitsa는 「中共: 三個十年, 三種政策」이라는 제목 아래 50年代, 60年代, 70年代의 中蘇관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한 서적을 편찬하였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中共의 30年 가운데 초기 10年은 「平和・民主 및 社會主義」 진영의 일원으로, 중기 10年은 「帝國主義」의 종속국 내지는 예비부대로, 現在는 실질적으로 「國際反動과 侵略力量」의 돌격대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았다.¹⁾

비록 蘇聯의 中共 평가가 강렬한 주관적인 색채를 띠고 있으나, 中蘇관계의 실제 변화 상황으로 보아 완전한 虛構는 아닌 것 같다. 사실상 1949年 中共정권 성립 후, 中共의 對外政策은 여러 번에 걸쳐 명백한 變化를 겪었으며, 中共의 對外政策 變化에 따른 對蘇聯관계 역시 상당한 變化를 낳았다. 간단히 설명하면 中共의 50年代 對外政策의 특징은 親蘇反美이며, 60年代 들어와서 反蘇反美로 바뀌었다가, 70年代는 反蘇政策을 계속함과 동시에 美國과의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80年代 이후부터는 美國과 蘇聯과의 관계를 동시에 개선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다.

中共의 對外政策이 비록 완전하게 날카로운 分析과 객관적인 지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반드시 임의대로 政策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國內政治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蘇聯의 中共 전문가들 역시 中共이 對外관계를 分析할 때에 이 點을 강조한다.²⁾ 中共정권 성립 초기에는 대륙정권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경제가 황폐되어 臺灣을 기초로 한 중국 합법정부가 언제든지 반격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

1) M.S. Kapitsa, 『中共: 三個十年, 三種政策』(KNR: *Tri desyatiletiya-tri politiki*) (Moscow, 1979) p. 573.

2) G.V. Astafyev, A.M. Dubinsky (主編), 『中共의 對外政策과 국제관계』(*Vneshnaya Politika i Mezhdunarodnye Otnosheniya KNR*) (Moscow, 1974) Vol. 1, p. 5.

러한 상황 아래 中共은 政權을 存續시키기 위하여 우선 필연적으로 하나의 강대국을 선택하여 의지하여야 했다. 이데올로기와 유구한 역사에 근거를 둔 中共은 단지 한 방면만 蘇聯을 향하였다. 당시 이러한 결정은 당연한 결과였다. 中共 역시 스스로 50年代의 일방적인 蘇聯을 향한 對外관계는 時勢의 압박으로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승인하였다.³⁾

60年代 末, 中共의 對蘇聯態度 變化이전 中國大陸의 상황은 이미 많은 變化가 발생하고 있었다. 中共政權은 軍事力을 中央 統制 아래 귀속시킨 바, 이것은 近代 中國史에서 보기 힘든 성과였다.⁴⁾ 中共정권 성립 후 初期 10年 가운데 中共의 經濟는 급속히 성장하여 50年 末, 中共經濟는 이미 안정기에 들어섰으며⁵⁾, 이와 동시에 中共中央集權의 政治統制도 이미 공고하게 되었다.

이론상으로는 1) 국가의 軍事力과 對外 충돌행위와 정비례하며 2) 국가의 經濟 발전 수준은 對外 충돌행위와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3) 정부의 중앙집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對外 충돌행위 가능성이 높다.⁶⁾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變權論 가운데 두가지는 中共의 對外政策을 충돌행위로 몰아 넣었다. 經濟 발전 수준과 對外 충돌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이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經濟 발전 수준과 軍事力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中共의 國力이 점차 신장되어 갈 때 蘇聯共產黨 지도자 후루시초프가 마르크스主義의 기본條件을 수정함과 동시에 스탈린 격하운동을 벌이자, 中共은 이에 반대하여 소위 이데올로기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全 60年代를 蘇聯과 中共은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經濟관계 악화, 軍事

3) 「胡耀邦의 日本기자 회견」, 『大公報』(香港), 1983年 10月 9日, p.3.

4) A. Doak. Barnett, *Uncertain Passage: China's Transition to the Post-Mao Era*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4), p. 74.

5) 4)와 동일한 책. p. 168.

6) Patrick J. McGowan, Howard B. Shapiro, *The Comparative Study of Foreign Policy, A Survey of Scientific Findings* (Beverly Hills, Cal.: SAGE Publications, Inc., 1973), pp. 70, 95, 107.

合作 중지 및 兩黨관계 단절까지 발전하고, 최후에는 국경지방에서 유혈 사태인 무장충돌이 생겼다.

1968年 8月 蘇聯은 체코의 자유화운동을 막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하고, 1969年 3月과 8月에 中·蘇국경에서 무장충돌이 발생하여 蘇聯은 中·蘇국경지방에 병력을 계속 증가하여 中共으로 하여금 蘇聯의 위협을 느끼도록 하였다. 심지어 蘇聯은 駐美 蘇聯의교관을 통하여 미국측에 만약 蘇聯이 中共에 先制 攻撃을 취할 경우 미국은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나타낼 것인가라고 시험해본 적도 있었다. 美國은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다.⁷⁾ 60年代 末 中共의 文化革命이 점차 수습되고 毛澤東의 정적들이 하나 둘 사라져 國內政策이 온화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때문에 中共의 外交는 蘇聯과의 긴장관계를 완화하는 한편 美國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美國은 中共을 이용하여 蘇聯의 아세아 軍事力을 제한하고 또한 中共을 통하여 越南 문제⁸⁾를 해결할 목적으로 中共과의 접촉을 시도하였다.

1972年 美國 대통령 닉슨의 中國大陸 방문 후, 美國과 中共의 관계 정상화는 순리적으로 추진되었으나 中共과 蘇聯과의 관계는 개선되는 기미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70年代 中共의 對外關係는 비교적 美國에 편중하였다. 1979年 1月 美國과 中共은 정식으로 국교를 맺어 中美관계 정상화가 最高潮에 도달하였다. 中蘇관계 정상화 회담은 1979年 9~10月 사이에 비로소 정식으로 시작하였다.

3. 中蘇關係 正常化展開

1979年 4月 3日 中共은 第5次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第7次

7) John Barron, *KGB: The Secret Work of Soviet Secret Agents* (New York: Bantam Books, 1974), p. 4.

8) William E. Griffith, *Peking, Moscow and Beyond* (Washington D.C.: CSIS, 1973), p. 3.

會議에서 「中蘇友好同盟互助條約」이 만기되면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中共은 中·蘇사이에 원칙상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양국가는 평화원칙의 기초 아래 정상관계를 발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선포하였다. 이와 함께 中共은 蘇聯政府에 회담을 진행시켜 미해결된 쌍방 현안문제를 타결하자고 건의하였다.⁹⁾

中共의 이러한 제의는 즉시 蘇聯이 받아들였다. 사실상 中蘇關係 악화 이후, 蘇聯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상호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 진행 제의를 中共측에 건의하였다. 일찌기 1965年 9月 蘇聯은 쌍방의 상호비방을 중지하자고 건의하였으며, 1970年 7月 6日 蘇聯은 中共측에 회담을 거행하여 쌍방이 武力으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 것과 전쟁선전 및 상대방의 공격준비 비방을 중지하자는 협정 초안을 만들자고 건의하였다. 中共은 이 제의에 대하여 직접적인 회담은 회피하였다. 1971年 1月 15日 蘇聯은 中共을 향하여 武力 혹은 武力威脅을 사용하지 말자는 條約 체결을 건의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條約草案 1부를 中共측에 전달하였다. 中共은 이 제의를 역시 거절하였다. 1973年 6月 모스크바로부터 쌍방은 육상·해상·공중공격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고 공격의 위협 역시 가하지 않겠다고 규정한 相互不攻擊條約 草案을 북경에 전달하였다. 이 草案 역시 中共은 거절하였다.¹⁰⁾ 70年代 이후 蘇聯의 對中共政策 方針은 다음과 같다. 1) 毛澤東主義에 대하여 계속 투쟁 진행 2) 平和共存의 기초 아래 中共관계의 정상화 준비 3) 만약 北京政府가 마르크스主義를 기초로 한 政策으로 돌아온다면, 蘇聯은 이와 상응하는 반응으로 黨과 黨관계 회복.¹¹⁾

中蘇條約은 1980年 4月 11日 효력이 중지되므로 中共과 蘇聯 쌍방은 회담을 통하여 中蘇條約 만기 이전까지 새로운 相互관계 기구를 원하였다. 이에 쌍방은 하나같이 회담에 동의하게 되었다. 1979年 9月 中共代表團

9) 『大公報』, 1979年 4月 4日, p.1.

10) Raisa Mirovitskaya, Yuri Semyonov, *The Soviet Union and China* (Moscow, 1981), pp.79~80.

11) 『眞理報(Pravda)』 (Moscow), Feb. 25, 1976 ; Feb. 24, 1981.

이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회담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會議日程에 관하여 논쟁이 생겼는 바, 蘇聯측은 中蘇관계를 위주로 하는 비교적 소규모 會議日程 채택을 주장하였다. 蘇聯은 政府사이의 관계정상화는 쌍방 공동 협의의 원칙을 법률의 기초로 정하여 문서에 기재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원칙의 기초 위에 적극적으로 問題를 해결하고 未來의 관계를 調整·發展시킬 계획이었다.¹²⁾ 中共측은 비교적 광범위한 會議日程을 채택하여 討論問題를 쌍방문제에 局限시키지 않고 蘇聯의 對外政策에 까지 확대하기를 주장하였다.¹³⁾

이 會談에서 中共은 1) 中蘇국경에 주둔하는 54個 蘇聯 陸軍 師團을 60年代 初期 수준인 12個 師團으로 감축 2) 외몽고에 주둔하는 蘇聯軍 전면 철수 3) 越南軍 캄보디아 점령 지지 철회¹⁴⁾ 등 세가지 先決條件을 제출하였다. 위의 세가지 조건은 中共이 1964年 11月 中·蘇관계 정상화 회담시 제시한 條件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그 당시 中共은 蘇聯共產黨의 第20次·第21次·第22次 代表大會 決議, 蘇共產黨 新綱領, 1957年 및 1960年 모스크바大會의 文件을 취소하고, 毛澤東思想 지지 및 中共의 「二十五點」提綱 채택을 요구하였다.¹⁵⁾ 蘇聯측은 비록 先決條件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회담의 성패가 中共이 毛澤東主義라는 안경을 쓰지 않고 蘇聯과 全世界를 관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달렸다고 여러 번 표시하였다.¹⁶⁾ 바꾸어 말하면 蘇聯은 中共이 다시는 「三個世界」理論을 가지고 蘇聯의 對外政策을 이해하고 분석하거나 蘇聯을 美國과 같이 「霸權主義」로 선전하지 말기를 요구한 것이다.

中蘇관계 정상화 第1次회담은 약 1개월 반 가량 계속되는 동안 구체

12) 회담중 蘇聯은 「蘇中관계에 관한 원칙 선언」을 제출하였으나, 공개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다; 參照, I. Aleksandrov, *Naperekor istoricheskoi pravdy*, 『眞理報』, Dec. 8, 1979, p. 4.

13) 『人民日報』(北京), Sep. 23, 1979.

14) 『大公報』, Jul. 28, 1980.

15) Raisa Mirovitskaya, Yuri Semyonov, *The Soviet Union and China*, p. 66.

16) 『人民日報』, Sep. 23, 1979.

적인 결과없이 다음 해(1980年) 北京에서 第2次 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11月 30日 막을 내렸다. 1979年 末 蘇聯의 아프가니스탄 침략으로, 1980年 1月 19日 中共은 蘇聯의 아프가니스탄 침략이 「世界平和와 中國의 安全을 威脅」할 뿐만 아니라, 中·蘇관계 정상화에 새로운 장애물로 등장하였다고 선포하였다. 中共은 이러한 상황 아래 中蘇 회담을 거행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여겨 회담을 중지하였다.¹⁷⁾

비록 中蘇관계 정상화 회담이 중단되었지만, 쌍방의 實質관계는 이미 점차적으로 많이 개선되었다. 中共의 「文化革命」부정·「四人幫」제판 및 毛澤東의 得失 분석 등은 中蘇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며, 中共의 「現代化」實行 主力 역시 평화적인 환경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中共으로 하여금 蘇聯과 회담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회담의 문을 中共이 닫은 관계로 중공측이 체면을 잃지 않고 문을 열 수 있도록 문을 두드려 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였다. 이 문을 두드려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蘇聯의 黨總書記 브레즈네프(L.I. Brezhnev)였다.

4. 關係正常化에 관한 雙方의 基本立場

브레즈네프는 1982年 3月 우즈베크공화국의 수도 타시켄트에서 연설할 때에 中共과의 關係改善 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4가지 기본입장을 밝혔다. 1) 蘇聯은 과거 中國大陸에 「社會主義制度가 存在」하지 않았다고 부정하지 않았으며, 장차 역시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2) 蘇聯은 始終 어떠한 형태로든지 「2개의 中國」 개념을 승인하지 않는다. 3) 蘇聯은 中共에 대하여 영토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언제든지 현 국경문제를 해결을 위한 회담을 계속 진행시켜 쌍방이 서로 용납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달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蘇聯은 국경지구에서 서로 신임있는 행동을 강화시

17) 『大公報』, Jan. 20, 1980.

키는데 관하여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다. 4) 蘇聯은 양국간의 敵對 및 疎遠상태가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蘇聯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쌍방의 이익을 존중하고 상호 內政干涉 없이 상호 명등과 제 3 국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기초 아래, 경제·문화 및 정치관계를 포함한 中蘇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 진행 준비가 되어 있다.¹⁸⁾ 이 聲明은 中蘇관계 정상화 과정 가운데 중대한 意義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곧 蘇聯의 對 中共관계 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蘇聯이 中共을 「社會主義 國家」라고 인정한 것과, 中共을 威脅하지 않겠다는 보증이다.

사실상 브레즈네프의 中蘇관계 改善聲明은 결국 蘇聯의 官員·學者·專門家 가운데 의견이 서로 다른 2 派를 절충하여 얻은 결과이다. 2 派중 黨·官員 다수가 속한 강경노선파는 O. Borisov 라는 筆名으로 저술을 발표하는 O.B. Rakhmanin 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강경파들은 中共의 對 外政策에 社會主義 性質이 농후하지 않고, 강경한 反蘇路線과 資本主義國家와의 聯合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¹⁹⁾ 이들의 中共관계 정상화에 대한 불찬성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만약 蘇聯이 中共과 관계정상화를 한다면 이것은 곧 기타 공산국가들로 하여금 더욱 독립을 고무하게 될 것이다. 2) 中共을 강대하게 만드는 것을 돕는 것이 되어 軍事的으로 蘇聯을 威脅할 가능성이 있다. 3) 蘇聯內部에 스탈린 격하 노력의 회복을 조성할 것이다.²⁰⁾

中共과의 관계개선을 주장하는 온건파의 구성원 대다수는 學者와 外交官으로, 漢學家 S.L. Tikhvinsky 와 M.S. Ukraintsev 라는 筆名으로 論

18) 『眞理報』, (蘇聯) Mar. 25, 1982.

19) 參照, O. Borisov, *Iz istorii Sovetsko-Kitaiskikh otnosheniy* (Moscow, 1981), pp. 1~8.

20) Gilbert Rozman, "Moscow's China-Watchers in the Post-Mao Era: The Response to a Changing China," *The China Quarterly*, Vol 94, (1983. 6), pp. 237~238.

交을 발표하는 漢學家겸 外交部 副部長 Kapitsa 가 대표적인 인물이다.²¹⁾ 이들의 생각은 中共內部에 비록 右傾분자들이 존재하나 「社會主義 기초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며」²²⁾ 그들의 外交政策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對中共관계를 개선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中共內政이 蘇聯스타일로 회복되었다. 2) 中共의 對外政策이 비교적 독자성이 풍부하나, 이미 70年代 反蘇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었다. 3) 中蘇관계 개선이 中共內部에 영향을 주어 蘇聯 스타일 성분을 강화하므로 中共 軍事의 現代化 進歩를 저하시킬 것이다. 4) 中共과 관계개선 후 蘇聯은 비교적 많은 자원을 얻어 蘇聯의 民生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²³⁾ 브레즈네프는 온건파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채택하였으며 또한 中蘇관계 개선의 실무를 Tikhvinsky 와 Kapitsa 에게 맡겼다. Tikhvinsky 와 中共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는 蘇聯 外交學院의 院長임과 동시에 「蘇中友好協會」의 실질적인 책임자이다. Kapitsa 는 원래 蘇聯 外交部 遠東 第1司司長으로 對中共관계 업무를 맡아 보고 있다가 副部長으로 승진한 사람이다.

中共은 1982年 9月 第12次 代表大會 석상에서 수차에 걸친 蘇聯의 관계개선 건의에 대하여 정식으로 답변하였다. 胡耀邦은 보고서에서 「우리들은 蘇聯지도자들의 여러 번에 걸친 中國과의 관계개선 표시를 주의깊게 관찰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行動이다. 만약 蘇聯當局이 정말로 中國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을 해제하여야만 中蘇 양국의 관계가 정상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²⁴⁾고 말하였다. 소위 對中共 安全 威脅은 1) 蘇聯의 中蘇국경 및

21) 例; M.S. Ukraintsev, "Sovetsko-Kitaiskie Otnosheniya: Problemy i Perspektivy," *Problemy Dalnego Vostoka*, 1982, Vol. 2, pp.15~24.

22) 蘇聯 「극동문제연구소」연구원 Dr. L. Gudoshnikov 의 일본 「共同通信社」가 자회전, *Japan Times*, Feb. 15, 1981.

23) 註 20)과 동일한 책, pp. 238~239.

24) 『大公報』, Sep. 8, 1982.

의몽고주둔군대 2) 蘇聯의 월맹군의 캄보디아 침략 지지 3) 蘇聯의 아프가니스탄 침략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들이 곧 中共측에서 주장하는 蘇聯관계 정상화 길에 놓인 주요 장애물이다. 이 장애물 제거가 中共측의 蘇聯관계 정상화 3大條件으로 앞에서 언급한 條件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中共 역시 蘇聯과 마찬가지로 지도자층과 학자들 사이에 蘇聯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있었다. 그러나 中共大陸에서는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蘇聯보다 적은 것 같다. 예를 들면 蘇聯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부터 中共의 會談 중지 결정까지는 약 20일 정도 소요되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의견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신속한 결과를 얻은 것임을 보여 준다. 이익단체의 관점으로 보면, 外交인사들은 관계 정상화를 찬성하였지만, 軍事관계인사들은 모두 찬성하지는 않은 듯하다. 비교적 특수한 경우가 있는 바, 中共의 학자 및 전문가들은 거의 모두 이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우리들은 中共 官員들은 蘇聯과의 관계개선 노선을 걸었으나 학자들 가운데는 관계정상화를 반대하는 수가 찬성쪽 보다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中共의 학자들은 中共이 西方측으로 기울기를 원하였지 蘇聯과 화해하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中共 統治 아래에서의 침묵은 찬성이 아니라 반대인 것이다.

中共은 「第12次 代表大會」에서 정식으로 장차 「獨立外交政策을 견고하게 실행하겠다」고 선포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中共은 절대로 어떠한 大國家 혹은 國家集團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方針 아래 中共은 워싱턴과 모스크바 사이에 평행외교를 취하여 美國측으로도 기울지 않고 蘇聯측으로도 기울지 않았다. 80年代 中共의 주요 두가지 목표는 「現代化」와 「國境安全」이다. 국경안전을 위하여서는 蘇聯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여 쌍방간의 긴장상태를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 現代化를 위하여서는 西方의 기술과 자본에 의지하여야 했다.

이러한 背景 아래, 蘇聯이 비록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를 철수하지 않

았으나 中共은 회담 再開에 동의하였다. 다만 「회담」이 「협약」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으나, 대표자는 여전히 副部長級이었다. 第1回 협약은 1982年 10月 北京에서 거행되었으며, 第2回 협약은 1983年 3月 모스크바에서, 第3回 협약은 1983年 10月 北京에서, 第4回 협약은 1984年 3月 모스크바에서 거행하였다. 다음 협약은 1984年 10月 北京에서 거행할 예정이다. 第4回 협의회시 中蘇쌍방은 「상호이익의 기초아래 經濟·貿易·科學·文化 및 體育 등 여러 방면에 연결과 왕래가 증가하였다」²⁵⁾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5. 中蘇 實質關係의 變化

약간의 관찰가들은, 中蘇관계가 공개적으로 決裂되기 이전 이미 논쟁은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中蘇관계에 改善의 가능성이 보일 때는 이미 실제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改善이 발생되었으나 다만 세상 사람들에게 발자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中共과 蘇聯은 이미 어떻게 平和共存하는지에 익숙하여 있었지만, 점차적인 관계개선 初期에는 相互訪問 및 共同聲明을 발표하지 않아 세상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²⁶⁾ 쌍방관계에 어느 정도 改善이 이루어진 후 회담 혹은 협회가 비로소 가능해 진다. 이런 관계로 아프가니스탄사건 역시 정상화 과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정상화를 위한 政治협상을 시작한 후, 쌍방의 실제관계는 분명하게 改善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經濟關係는 이미 改善되었다. 60年代 中期 中蘇貿易總額이 처음 줄기 시작하여 1970年은 최하선(합계 약 5千萬달러)에 도달하였다. 그 후 점

25) 『眞理報』(蘇聯), Mar. 27, 1984; 『大公報』, Mar. 27, 1984.

26) Roy Medvedev, "The USSR and China: Confrontation or Detente?", *New Left Review*, Vol. 42, Dec. 1982, pp. 13~14.

차적으로 증가되어 70年代 全期間은 2억불과 3억불 사이를 배회하였다.²⁷⁾ 1983年 中蘇貿易은 약 8억불로 크게 증가하였다. 1984年 2月 蘇聯外貿易部副部長 I.T. Grishin 과 증공은 1984年度 貿易總額이 1983年보다 60% 증가한 약 12억불 상당 수준으로 한다는 1984年度 貿易協定에 서명하였다.²⁸⁾ 그리고 中蘇政治관계가 단시일 내에 중대한 改善이 생기면 무역은 계속 증가될 것이다. 中共의 對蘇聯集團과의 貿易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좋은 점이 있다; 1) 蘇聯 및 東歐국가들의 기술·장비가 비록 西方국가에 미치지 못하지만 조각이 용이하다. 2) 개인회사와 교역할 필요 없이 물물교환 형식을 통한 무역이 비교적 가능하다. 3) 中共의 輕工業 상품이 비교적 쉽게 蘇聯 및 東歐국가 상점에 받아들여진다.

中蘇國境이 평온해졌다. 1981년부터 中蘇국경의 긴장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완화되었다. 中共 스스로 크레믈린宮이 병력을 자랑하기 위하여 빈번히 국경부근에서 거행하는 군사훈련이 많이 감소되었다고 시인함과 동시에, 변경지방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들은 비교적 좋은 기회를 보아 회담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²⁹⁾ 근래 쌍방 모두 어떠한 국경사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최근 中共 역시 蘇聯의 아세아 주둔군사력의 주요목표는 美國과 日本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시하였다.³⁰⁾ 1983年 7月 中共 對外經濟貿易部는 中蘇국경 무역거점 도시 세 곳이 폐쇄된지 20年만에 다시 貿易을 시작하였으며, 세 곳 중 두 곳은 대륙 西北地方인 新疆에, 다른 한곳은 대륙 최북단인 黑龍江省에 있다고 밝혔다. 1984年 4月 내몽고 자치구 무역공사는 蘇聯 遠東公司 무역 대표단과 국경지방 무역에 서명하였다. 6月 黑龍江省長은 對蘇聯의 地方貿易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黑河·綏芬河·同江의 해안을 개방하는 것이

27) 蘇聯 對外貿易—1922~1981年(Moscow:「財政統計」, 1982), pp.16~17.

28) *Izvestiya*, Feb. 11, 1984, p. 4.

29) 『大公報』, Dec. 22, 1982, p. 1.

30) 『大公報』, Dec. 27, 1982, p. 2; 「제 6 차 전국인대 제 2 차회의상 정부공작 보고」, 『大公報』, Jun. 1, 1984, p. 16.

외에 계속 北韓의 淸津항을 이용하여 시베리아 대륙과 수출무역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하였다.³¹⁾

文化·體育 및 學術 등의 交流活動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60年代 中期부터 70年代 末期까지 쌍방의 來往은 거의 중단되었다. 80年代 初期에 들어와서 비로소 각종 비정부(민간)기구 대표들이 서로 방문하기 시작하였다. 貿易·文化·體育·學術團體 代表團의 상호방문으로 쌍방간의 「友好」분위기가 점차 회복되었다.

政府 高級官員의 상호방문이 회복되었다. 蘇聯과 中共의 政府官員들의 公式訪問이 회복되기 이전, 쌍방은 이미 「個人자격」으로 訪問을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1983年 1月 蘇聯 外交學院 院長이며 漢學家인 Tikhvinsky가 처음 개인자격으로 中國大陸을 訪問하였으며, 2月 中共은 비밀리 3명의 전문가를 蘇聯에 파견하였으며, 8月 中共外交部 蘇·東歐司 司長 于洪亮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11月 브레즈네프 사망 후, 中共 外相 黃華는 中共조문단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蘇聯공산당의 신영도자 Yuri Andropov 등을 만났다. 그러나 이러한 活動들은 모두 비공식 초청·방문들이다. 1983年 9月 蘇聯 외교부 副部長 Kapitsa는 北京政府의 公式초청을 받아 中共을 訪問하였다. 이것이 20餘年이래 中共政府가 公式으로 中國大陸訪問을 요청한 蘇聯의 첫번째 고급관원이다.³²⁾ 그 목적은 접촉의 새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다. 방문의 일정이 끝났을 때 蘇聯 부외상은 공식으로 中共 부외상 錢其琛의 蘇聯 방문을 초청하여 이 방문은 1984年 7월에 이루어졌다. 1984年 3月 안드로포프 사망 시 中共은 1명의 부총리를 조문사절로 파견하였다. 蘇聯공산당 총서기에 K.U. Chernenko가 된 후, 그는 中共과의 접촉회수를 증가시키기를 희망한다고 표시하였다.³³⁾ 사실상 蘇聯政府는 이미 蘇聯 부장회의 제 1부주임 I.V. Arkhipov를 北

31) 『大公報』, Jun. 5, 1984, p. 5.

32) 『大公報』, Sep. 9, 1983, p. 1.

33) 『眞理報』(蘇聯), Mar. 3, 1984, p. 1.

京에 파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준비가 되지 못하여 진행을 연기시키고 있었다.

中共과 東歐各國과의 關係도 현저히 改善되었다. 中蘇관계 개선에 발맞추어 中共과 東歐의 蘇聯집단인 폴란드·동독·헝가리·체코 및 불가리아의 관계 역시 현저히 개선되었다. 이들과의 사이의 약 20餘年 동안 냉담한 기술·경제합작관계도 역시 이미 회복되었으며, 무역총액은 점차 증가되고, 相互訪問代表團 역시 來往이 빈번해졌다. 中共 부의장 錢其琛은 1983년과 1984년 東歐 5개국가를 두루 방문하였다. 이 동구 5개국가들의 對外政策은 蘇聯과 동일한 관계로 이들과 中共과의 관계의 실제상황 가운데서 中蘇관계의 경향을 고찰할 수가 있다.

이외에도 中共과 蘇聯의 언론과 선전 가운데 여전히 상호비방을 계속하고 있으나 상호비방은 外交政策에 한정되어 있을 뿐 相互內政간섭은 거의 없었다. 예를 들면 미국의 西方國家에 신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中共은 양대 초강경국가들의 핵무기 경쟁 가운데 우세를 쟁취하기 위한 강렬한 투쟁의 표현이라고 논평하였는 바, 蘇聯은 中共이 이 문제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西方戰略家들의 판단에 의하면 蘇聯은 재래식武力을 증가하여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中共 역시 이 관점에서 동의하고 있다. 이에 蘇聯은 中共이 자기의 재래식武力을 증가시키려는 구실을 蘇聯에서 찾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美國의 Grenada 점령사건에 대하여 中共은 미국을 비난하는 한편, 이러한 美國의 행동과 蘇聯의 아프가니스탄 침략을 함께 들어서 공격하였다. 日本 北方 영토문제 및 극동의 蘇聯군사위협에 있어 中共은 日本政府와 동일한 立場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中共의 政策이 蘇聯의 비난을 받고 있다. 越南과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쌍방이 서로 예리한 논쟁으로 상대하여 서로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6. 正常化에 관한 最近論點과 正反要素

최근 몇 개월 동안 中共지도자들이 對中·蘇관계에 관하여 표시한 의견³⁴⁾은 다음과 같다. 1) 中共은 「社會主義 現代化」건설에 注力하고 있는 관계로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국제환경이 되기를 희망한다. 2) 中共과 蘇聯은 이웃 국가인 관계로, 中共은 진실로 관계정상화가 되기를 희망한다. 3) 양국관계의 改善은 쌍방의 상호이익에 부합된다. 4) 쌍방 관계에 이미 발전이 있으나, 아직 서로 노력하여 더욱 발전할 필요가 있다. 5) 쌍방관계의 정상화 이전, 3가지 장애(中蘇國境 및 外蒙古의 蘇聯軍隊 주둔, 蘇聯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蘇聯의 越盟軍의 캄보디아 침략 지지)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蘇聯의 지도자들도 여기에 대하여 자기들의 입장을 표시하였는 바³⁵⁾, 그 主要點은 다음과 같다. 1) 中蘇관계 정상화는 國際社會에 社會主義 작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2) 蘇聯은 일관성 있게 中蘇관계 정상화를 주장하였다. 3) 양국은 관계정상화에 여전히 원칙성의 차이가 있다. 蘇聯은 어떠한 협제도 제 3 국가의 이익에 손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4) 계속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 5) 쌍방이 접촉회수를 증가시키기를 건의한다. 6) 中蘇관계가 이미 여러 방면에 많은 진전이 있으나, 中蘇관계 긴장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약간의 사람들과는 뜻이 부합되지 않고 있다.

분명한 것은 中共 및 蘇聯 쌍방은 모두 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으나,

34) 「李先念의 彭眞 조문전보」, 『大公报』, Feb. 12, 1984, p. 1; 「鄧小平의 中國統一에 관한 언급」, 『大公报』, Feb. 23, 1984, p. 1; 「아리야프의 萬里 집견」, 『大公报』, Feb. 16, 1984, p. 1; 「胡耀邦의 中蘇關係에 관한 언급」, 『大公报』, Mar. 19, 1984, p. 2; 「제 6차 전국인대 제 2차회의상 정부공작 보고」, 『大公报』, Jun. 1, 1984, p. 16.

35) 「체르네프동지의 연설」, 『眞理報』, Mar. 3, 1984, p. 1; 「교환의견」, 『眞理報』, Feb. 16, 1984, p. 2; 「아리야프의 萬里 집견」, 『大公报』, Feb. 16, 1984, p. 1.

서로 중대한 양보를 할 생각이 없는 데 있다. 곧 쌍방의 國內政勢로 말한다면, 쌍방의 관계정상화에 대하여 正面要素와 反面要素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正面要素를 보자. 1) 쌍방의 國內政策: 中共은 全力을 기울여 現代化를 실행하고자하는 관계로 對外衝突行爲를 극소화하고, 軍費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蘇聯은 현재 경제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權力鬭爭도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양 국가는 國內問題에 全力을 기울이기 위하여 서로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2) 對外政策에 있어 中共은 계속 獨立自主 外交政策을 강조하여 美國 혹은 蘇聯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으려고 하는 관계로 美·蘇 양 국가와 동시 관계개선은 필연적인 방향이다. 蘇聯측에서 보면, 美蘇관계악화와 美·日합작관계강화 등으로 蘇聯은 필수적으로 中共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中共으로 하여금 「美·日·中 三角聯盟」가입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 3) 經濟 및 工業技術 方面에 있어 中共은 여전히 蘇聯을 필요로 한다. 中共의 四十餘萬 工·鑛기업 가운데 中華民國 政府가 남겨놓은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설비는 50年代 蘇聯으로부터 들어온 것이고, 현재 「四化」의 골격 역시 蘇聯의 技術 제공과 부속을 극히 필요로 한다. 또한 中共은 現在 輕工業을 적극 추진하는 바 그 商品들은 非共產國家市場에서의 경쟁력이 무척 약하여 蘇聯과 東歐集團의 市場 개척을 요한다. 4) 직접 혹은 간접으로 蘇聯의 교육을 받았든지, 혹은 中蘇 傳統友好를 중시하도록 교육받은 中共간부들이 이미 대부분 복직되었다. 문화혁명 후 中共과 蘇聯은 여전히 同一한 政治 및 이데올로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³⁶⁾ 분명한 것은 中·蘇 양국 모두 상대방을 社會主義國家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쌍방의 관계개선에 있어 다른 또 하나의 유리한 要素이다.

反面要素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1) 中共이 계속 강경하게 요구하는

36) 註 20)과 같은 책, p.17.

관계정상화의 先決條件 3가지가 蘇聯측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中蘇關係 正常化가 쉽게 풀려지지 않는 최대 원인이다. 2) 쌍방의 지도층 계급은 장기간 동안 서로 적대시하여 단기일내에 서로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쌍방 국가의 최고 권력지도자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 공산국가나 모든 독재국가들의 對外關係는 지도계층 혹은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요소가 무척 크다. 예를 들면 蘇聯의 現 총서기 체르넬코의 中蘇關係 正常化에 대한 열의가 전임 총서기 안드로포프보다 적어서 現在의 中蘇關係正常化의 발전속도가 이전보다 원만하다. 中共도 現在 鄧小平의 지휘하에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만약 鄧小平이 정치무대에서 사라진다면 후계자의 입장을 추측하기는 쉽지 않다. 4) 中·蘇·美 三角關係의 상호 움직임같은 국제환경이 中·蘇關係 正常化를 순리적으로 발전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7. 結 論

中蘇關係의 基本방향은 여전히 關係正常化이나, 순리적이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鄧小平은 Z.K. Brzezinski에게 3가지 장애의 존재가 中蘇사이의 기타 문제의 改善과 發展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만약 蘇聯이 다시 3가지 장애문제에 대하여 양보하지 않는다면 양국의 관계정상화는 불가능할 것이다.³⁷⁾ 中蘇關係 正常化 과정 가운데 몇가지 特徵이 있다. 1) 蘇聯은 비교적 能動的이고 積極적인 반면 中共은 소극 정책을 채택하여 한정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2) 쌍방은 실제개선의 결과를 크게 선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상호비방으로 실제개선을 엄폐하고 있다. 3) 中共은 관계정상화 속도에 대하여 「三條件」으로 의식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다.

37) 『大公報』, Feb. 23, 1984, p. 1.

中蘇關係 변화 과정 · 쌍방 기본입장 · 최근 언론 및 相關要素를 근거로 中蘇관계 장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측을 할 수 있다.

1) 中蘇관계는 장차 계속 개선될 것이나, 속도는 매우 완만하고 어떤 때에는 停滯現象까지 발생할 것이다.

2) 非政府 기구의 교류활동은 끊임없이 증가될 것이며 政府官員의 접촉 회수도 증가될 것이다.

3) 쌍방 政府와 政府관계는 끊임없이 적은 폭으로 개선될 것이나, 對外關係에 있어 여전히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것이다.

4) 「협약」로써 일정한 성과가 있을 때 「회담」으로 바뀔 것이다. 회담의 主要目標 가운데 하나는 쌍방관계 기본문건을 제정하는 데 있다.

5) 政治關係에 비교적 큰 改善이 있는 후 쌍방은 새로운 기초 아래 兩國 共產黨間의 관계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종합해 보면, 쌍방은 自身의 이익을 위하여 관계개선을 장차 계속할 것이나 50年代의 政治 및 軍事聯盟關係를 회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中共 역시 美國쪽으로만 기울지 않고 유고슬라비아와 같이 東西사이에서 平衡外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英文要約〉

PRC-USSR Relations: An Analysis

Pi, Ying-hsien

Since 1949, when the Chinese Communist regime was established, its foreign policy has undergone several dramatic changes. Roughly speaking, during the 1950s the PRC pursued a policy, leaning to the Soviet Union and opposed to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1960s, a policy, hostile to both the USSR and the USA; during the 1970s, a policy, closer to Washington than to Moscow; since early 1980s, it has pursued a policy, trying to be amiable to both the White House and the Kremlin.

Probably, Peking's foreign policy was not based on a thorough perception and precise analysis of worldwide situation; certainly, it was not formulated by arbitrary decisions either, but in close connection with domestic conditions. At the end of the 1950s, the PRC already succeeded in placing the armed forces under the central government's command, reconstructing and stabilizing the shaky economy and consolidating its centralized political control. At this juncture, N.S. Khrushchev, the leader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started revising some of the basic principles of Marxism-Leninism and launching the destalinization drive, and Peking felt itself strong enough to raise objection, which resulted in ideological struggle. Through the whole period of 1960s, the ideological struggle led to deterioration of economic ties, suspension of military cooperation, separating

of party-to-party relations and finally the armed clashes on the Sino-Soviet border areas. Consequently, the Soviets increased their troops along the Sino-Soviet borders, constituting an apparent military threat to the PRC. Entering the 1970s, as the Cultural Revolution gradually came to the end, Peking started to ease tension between the PRC and the USSR on the one hand, and to improve its relations with the USA on the other in order to insure its security.

In April, 1979, the PRC announced: "the Sino-Soviet Friendship, Alliance and Mutual Assistance Treaty will not be prolonged, when it expires," and proposed to hold negotiations between two sides to seek for resolutions of the existing problems between them. The USSR agreed and, as a result, the PRC's delegation arrived in Moscow in the fall of that year. During the talks, Peking laid down three preconditions for improved Sino-Soviet relations, namely, (1) the Soviet government should thin out its troops along their mutual borders; pull its troops out of Mongolia; and quit its support for Vietnam's occupation in Cambodia. The talks failed to achieve any concrete results, however both sides agreed to resume the talks later in Peking. After the Soviet invasion of Afghanistan, the Peking regime suspended the talks.

Despite the suspension of negotiations, their practical ties improved little by little. In March, 1982, L.I. Brezhnev, General Secretary of the CPSU made known the Soviet serious intention to better relations with the PRC by stating that the USSR always recognizes the PRC as a socialist country and that it by no means threatens the PRC's security. At its 12th Congres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made a positive official reply to Brezhnev's statement, though still insisting on the three preconditions with additional demand that the Soviet troops be withdrawn from Afghanistan.

By early 1980s, the PRC has concentrated its efforts on two major goals; modernization and national security. For the latter it has to improve relations with Moscow; for the former it must maintain good ties with western countrie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Therefore,

the CCP formally trumpeted its independent and self-reliance foreign policy. Under the circumstances, between the PRC and the USSR have been resumed the deputy minister level contacts, being called political consultations instead of negotiations and held alternatively in Moscow and Peking, twice a year. The next one will be held in October in Peking.

Since the consultations started,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m have been obviously improved. For example, (1) the volume of bilateral trade has continued to increase; (2) cultural, sports and academic exchanges have been gradually intensified; (3) the situation on border areas has been improved; (4) official visits have been resumed; (5) relations between the PRC and the Soviet East European bloc have improved. Truly, they still occasionally trade oral attacks, which, however, are more related to foreign policy than to domestic politics.

More recently, their respective attitudes toward and arguments over normalization of Sino-Soviet relations might be epitomized as follows. On the part of the PRC: (1) the government is concentrating all efforts on modernization and, thus, prefers a peaceful international environment; (2) it is sincerely willing to normalize relations with the USSR; (3) improved Sino-Soviet relations meet both states' interests; (4) the bilateral relations have been already improved; (5) in order to smooth the road of normalization the three major obstacles must be removed. As for the USSR: (1) it consistently stands for normalization of Moscow-Peking relations; (2) Normalization of Sino-Soviet relations will intensify the role of socialism in international affairs; (3) normalization of relations should not be detrimental to the interests of the third party; (4) to continue the consultations is profitable; (5) the USSR proposed to upgrade official contacts between the two states.

Under the present conditions, the factors in favor of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Peking and Moscow include: (1) domestic policies of both sides; (2) Peking's reliance, not vital but conducive to its

modernization, on the Soviet Union in economic,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aspects; (4) rehabilitation of a certain number of Soviet-trained cadres in the PRC. The unfavorable factors cover: (1) PRC's three preconditions, to which the USSR pledged not to submit; (2) the difficulty to rebuild mutual trust between the leaders of both sides, who engaged in mutual hostile criticism for more than two decades; (3) imminent changes in leadership of the highest level; (4) unwillingness of western nations to see improved Sino-Soviet relations.

By and large, the general trend of Sino-Soviet relations is normalization, but it is a muddling-through and complicated process, which has been so far characterized by the facts, namely: (1) in the course of normalization, Moscow has been more active than Peking, that has taken small-step policy in this regard; (2) both sides have evidently refrained from propagandizing actual progresses achieved already in normalization of relations; (3) the PRC has intentionally manipulated the pace of normalization by dint of the three preconditions.

The scenario of their future relations might be envisaged as follows: (1) the bilateral relations will continue to improve, but at a lingering pace; (2) exchanges of non-governmental visits and activities will continue to increase, the level of official contacts might be escalated; (3) the government-to-government ties will be improved step by step, while they remain considerably disagreeing in the field of world politics; (4) the consultations might be converted into negotiations, aiming at formulating a framework for their future relations; (5) after the political reactions are improved to a certain extent the party-to-party relations might be resumed.

In sum, the PRC and the USSR will continue to improve their relations for reasons of their respective interests, however, unlikely will they go back to the close political and military relations of early 1950s. The PRC will neither lean to the USA nor to the USSR, rather they will, possibly like Yugoslavia, pursue a balanced foreign policy between the superpowers.